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가치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류진아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 가치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류진아

Master's Thesis

Family Values in Changing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Malaysia-

August 2014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Gina Ruth Aliza Friesen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 가치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연구-

지도교수 은 기 수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류진아

류진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Family Values in Changing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Malaysia-

Eun, Ki-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May 2014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Gina Ruth Aliza Friesen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Gina Friesen

August 2014

Chair _____ **(Seal)**

Vice Chair _____ **(Seal)**

Examiner _____ **(Seal)**

© Copyright by Gina Friesen 2014
All Rights Reserved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유교와 이슬람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교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으로 이들 나라들에서 남녀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 나라들의 낮은 수준의 'Global Gender Gap'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들은 여전히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교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개발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적 분석은 각 국가의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떻게 유교와 이슬람의 가족 가치관들이 중요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시아인의 가족 가치관'은 통계상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는 '탈유교 개발 이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족 가치관은 경제 개발에 따라 다르게 변화했다. 교육 기회의 증가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유교 가치관은 약해졌다. 대조적으로, 이슬람 말레이 사회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가치관은 유지되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가치 수렴현상(convergence)에 대한 말레이시아에서 가치의 고집현상(persistence)은, 종교-이데올로기의 경로 의존성에 관한 잉글하트(Inglehart)의 이론과 역사에서의 종교 발달에 관한 토인비(Toynbee)의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설명된다. 즉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는, 문화적 경로 의존성에 따라 서구식 근대화와 산업화에 각각 다르게 반응했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종교-이데올로기 문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적어도 7개의 종교-문화적 영역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유교와 이슬람 지역은 두 가지의 분명한 문화지대였다.

본 논문은 분석 부분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20세기와 21세기 초기의 종교 역사를 간결하게 다루었다. 한국 전쟁 후, 한국 정부는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에 의존했다. 토인비는 한국의 이러한 현상을 인간 숭배에서 온 제2단계 종교에 대한 국가적 의존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소 세계적인 국가 및 강력한 한국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얻었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처럼, 더 젊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훨씬 더 남녀평등 쪽으로 나아갔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두 경우와 달리,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동맹 대신에 이슬람 문화를 활성화시켰다. 여기서 토인비는 이슬람이 ‘완전무결한 현실 (Absolute Reality)’을 숭배하는 유대교, 또는 기독교와 같은 제3단계 고등 종교라고 설명했다.

비록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이 훨씬 더 빠르게 남녀평등 쪽으로 변화했지만, 한국인의 가족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심지어 붕괴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고 있던 서구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가족 가치관은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부족했지만, 가족 결속력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남녀평등 및 지속 가능성과 함께, 어떻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지에 관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어 : 한국, 말레이시아, 가족가치관, 이슬람, 유교 사상, 인류 개발
학 번 : 2011-24218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기존 연구	6
1.3. 자료와 방법	6
2. 한국인·말레이인 아시아적 가족가치관	8
2.1 말레이인과 한국인 가족가치관의 주성분 분석	9
2.1.1. 말레이인 가족가치관 주성분 분석	9
2.1.2. 한국인 가족가치관 주성분 분석	12
2.2. 아시아 가치관 지수: 한국인과 말레이인	15
3. 한국인·말레이인 이혼과 동거 및 성역할 태도	19
3.1. 이혼	20
3.2. 동거	24
3.3. 성역할	28
3.4. 한국인과 말레이인 보수주의 지수	34
4. 결과 분석과 논의	36
5. 결론	44
참고 문헌	45
Abstract	51

표

- 표 1: 전체적 말레이 가족 가치관의 주성분 분석 결과
- 표 2: 전체적 한국 가족 가치관의 주성분 분석 결과
- 표 3: 전체적 한국인과 말레이인 가족 가치관 요인
- 표 4: 아시아 가치관을 대표하는 가족 가치관의 크론바흐 알파
- 표 5: 아시아 가족 가치관의 문항과 각 수치의 평균 지표
- 표 6: 이혼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 카이 제곱 통계 값
- 표 7: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카이 제곱 통계 값
- 표 8: 나이별 이혼에 따른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 표 9: 연령차에 따른 이혼 가치의 평균
- 표 10: 교육정도에 따른 이혼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 표 11: 교육정도에 따른 이혼 가치의 평균
- 표 12: 동거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 카이 제곱 통계 값
- 표 13: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카이 제곱 통계 값
- 표 14: 나이별 동거에 따른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 표 15: 연령차에 따른 동거 가치의 평균
- 표 16: 교육정도에 따른 동거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 표 17: 교육정도에 따른 동거 가치의 평균
- 표 18: 성역할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 카이 제곱 통계 값
- 표 19: 성별에 따른 성역할에 대한 카이 제곱 통계 값
- 표 20: 나이별 성역할에 따른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 표 21: 연령차에 따른 성역할 가치의 평균
- 표 22: 교육정도에 따른 성역할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 표 23: 교육정도에 따른 성역할 가치의 평균
- 표 24: 보수주의 지표: 동거와 이혼 그리고 성역할

그래프

그래프 1: 가족가치관에 관한 공통된 문항에 대한 수치의 평균

그래프 2: 아시아 가족가치관 일관성 대 아시아 가족가치관의 지표

그림

그림 1: 말레이인의 뚜렷한 성역할 1

그림 2: 말레이인의 뚜렷한 성역할 2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세기 후반부에 급속한 경제 개발을 일구어 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부른다 (이완범, 2006: 13). 한국은 개발의 표본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한국의 성공담 보다는 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발도 기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Choy Yee Keong, 2006: 861). 그러나 유엔 개발 프로그램(UNDP)에 의하면, 경제 성장은 개발에 있어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다. 1990년 이래로, UNDP는 개발의 개념을 국민소득의 차원을 넘어 취급하려는 시도로 - 처음엔 논란이 있었는데 - 인간 개발을 측정했다 (Alkire, 2010: 15; UNDP, 2010: iv). 이에 따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인간 개발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 개발이 무엇인지 볼 것이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인간 개발의 개념을 경제 개발과 연관시켜, 인류 개발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Amartya Sen 은 “인간 개발은 내가 기본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살고 있는 경제 활동의 풍요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Shaikh, 2007: 4). 예일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Gustav도 “오랜 동안 궁극적 목적이라고 간주되어온 경제 성장이 인간 개발의 성취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HDR Networks, 2007).

경제 개발에만 집중하고 인간 개발을 무시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UNDP는 희생을 감수해서 얻어진 경제 성장은 해가 되며, 실적을 양산하고 미래가 없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성장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NDP 1996, 57-63).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괄목할 성공을 하였어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개발과 더불어 인간성 개발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개발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남녀 불평등과 이러한 불평등에서 생기는 손실의 연관성이 있기에, 남녀

평등은 인간성 회복(개발)의 첫 단계가 된다 (UNPD, 2010: 93).

2013년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남녀평등의 등급은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경제적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남녀평등의 등급은 하위에 머무르며 2012년도 남녀평등 지수는 각각 0.59와 0.56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Social Watch, 2012). 또한, 2013년 136개 나라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Global Gender Gap에서 102 번째, 한국은 111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최하위 25%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World Economic Forum, 2013).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산층이 많은 회교 국가들과,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남녀평등에 있어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Ibid.). 유교의 영향이 나라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듯이, 이슬람교의 전래와 영향은 회교국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mai and Lee, 2002: 48; World Economic Forum, 2013).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격차(gender gap rating)의 동일패턴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와 많은 회교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건강과 교육 분야에서는 남녀평등이지만, 아쉽게도 경제활동에서는 저조하며, 정치 참여는 거의 기회가 없다 (World Economic Forum, 2013).

유교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과 이슬람의 오랜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이러한 성차별의 유형은 유사한 점이 많다.¹⁾ 이러한 공통 가치관에는 역사적 뿌리가 있다. 예컨대 조선 왕조 (1392-1910)는 신유교(Neo-Confucianism)가 나라의 통치 철학이었다. 이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무슬림 문화권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무슬림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의 여성들은 가정의 명예를 지켜야 했으며, 가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Choi, 2009: 49; Deuchler, 1992: 258). 심지어는 한 집안의 남성이 순결(純潔)을 잃어버린 본인가정의 여성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Kendall, 1996: 97).

1) 유교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은 이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중국은 공산주의 하에서 도입된 남녀평등의 정책 때문에 높은 남녀평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Lindsey, 2005: 143). 베트남은 중국과 비슷한 이유로 높은 남녀평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기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는 소문이 난무(亂舞)할 정도였다. 죽인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 여성(딸, 아내)의 신체를 더듬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적 언어로 성희롱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Ibid.).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의 관습이듯이, 조선 시대는 중매결혼은 사회의 규범이었다. 게다가 이슬람 사회와 같이 조선 시대의 결혼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완성을 의미했다 (Kendall 1996: 7; Lee 2005: 103). 결혼을 안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아이” 취급을 받았었다 (Ibid.).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사회와 무슬림의 사회의 공통점은 계속된다.²⁾ 조선시대의 여성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는 결혼해서 아들을 출산하여 남편의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Deuchler, 1992: 274-275). 이것은 무슬림 사회와 유사하다. “이슬람과 유교사상은 둘 다 가부장적 체제이다” (Abdullah, Shukri and Othman, 2011: 133). 아들, 가족의 정체성, 남성위주의 혈통을 승계하는 것 등은 무슬림 사회의 가치관이다. 이슬람의 율법에 속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의 가치관에 속한 한국 여성의 정체성(identity)은 남편의 법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Sang Hwa Lee, 2005: 71). 유교의 관습은 전통적인 무슬림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결혼 지참금을 명시하고 있었다 (Kendall, 1996: 177). 유교와 회교의 율법은 결혼한 여성의 의지에 의한 이혼은 거의 불가능했다 (Deuchler, 1992: 276; Sonbol, 1996). 유교와 이슬람 율법에 의한 상속의 관습은 주로 남성위주로 실행되었다. 유교와 이슬람의 사회 통념은 일부다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유교와 이슬람 유산들이 한국과 말레이 사회에 어느 정도로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과거 조선 시대에 끼쳤던 유교의 영향은 현대의 한국에서는 겉보기로 판단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유교의 이념이 근대 한국의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사회에 유교의 유산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Tamai and Lee 2002: 34).

2) 이것은 본 논문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지만, 이슬람과 유교 사회는 그들의 이념에 관한 고전 연구와 암송으로 이루어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 교육제도의 오래된 전통이 있었다. 이슬람은 마드라사들이 있었고, 한국은 서당이 있었다. 더욱이, 아랍어와 중국의 한문 필기 양식은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

남녀 불평등의 뿌리 깊은 인습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비 공산국가들과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무슬림 국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인과 말레이인을 유교와 이슬람교 사회의 표본으로 삼아 이들 사회의 가족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그의 유사함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사람들과 말레이 사람들의 공통 가족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을 비교, 대조한다.³⁾
3. 말레이인과 한국인의 이혼과 동거, 성역할에 관한 태도 비교와 대조한다.
4. 발견된 사실을 토의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중요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미국과 서양의 산업화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성공”은 이른바 “아시아인의 가치관” 특히 유교적 가치관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해진다 (Eun, 2013: 102-103). 지금까지는 말레이 사회에 있어서 이슬람의 가족의 가치관은 ‘아시아인의 가치관’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말레이의 가족 가치관과 한국, 일본, 대만의 유교적 가족의 가치관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시아적 가족 가치관’은 유교적 사회들과 적어도 하나의 이슬람 사회를 포함 시켜서 서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발 이론을 위한 전제가 된다. 만약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유교적 국가들처럼 급속한 경제 개발을 했다면 이러한 성장은 아시아인의 가족 가치관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앞으로 있을 연구는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⁴⁾

3)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과 ‘아시아 가족 가치관의 지표(index)’를 사용했다.

4) 아시아의 가치관은 “여전히 보주주의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다” (Eun, 2006). 이 정의는 쉽

두 번째, 본 연구는 어쩌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저조한 남녀평등이 최근 2013년까지 있어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유교적 가치관이 있는 ‘좋은 정부’,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교육열, 공동체에 기여 등과 같은 아시아 나뭇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아시아의 성공의 비결이지, 개인주의,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서양의 가치관이 아시아의 성공의 원인은 아니었다” 라고 리관유 수상은 주장했다 (Han, 2011: 203).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수상을 포함하여 많은 지도자들은 남녀평등보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중시 하였다. 비록 리관유와 달리 김대중 같은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은 아시아 가치관 안에 인권과 인간 개발 같은 ‘서양식 가치’ 들이 아시아 정체성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발도 남녀불평등의 가족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Han, 2011: 218). 이른바 ‘아시아 가족 가치관’ 은 남녀불평등이었다. 남녀평등과 같은 인간성 개발이 경제 개발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보여줬다. 물론 ‘아시아 가족 가치관’은 친족에 기초를 둔 단일혈통의 민족주의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의 민족주의는 (변화되지 않는) 혈통주의에 가치관을 연결시킬 수 없고, 시민위주의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가치관’ 이라는 이름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불평등적 ‘아시아적 가치관’ 이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됐다. 사실상 처음에는 서양도 서양 나뭇대로 발전하여 왔다. 우선은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고, 후에 남녀평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인간 개발의 UNDP 정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서양의 태도 변화는 비교적 최근 20여 년 동안에 생긴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처럼 이제 한국도 남녀평등이 향상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를 보면 이런 추세를 볼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게 이슬람 가족가치관을 유교의 가족 가치관과 연관시킬 수 있다.

1.2. 기존 연구

본 논문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 가족가치관을 비교대조하는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를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눈 다음에 본인이 직접 비교대조할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세계적인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젠더 교과서와 젠더 주제를 가진 논문들, 그리고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온 보고서 등의 기존 연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가족가치관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연구이다. 이 기존연구는 다시 한 번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국문 자료와 영문 자료이다. 국문 자료는 주로 한국 젠더 이슈와 한국의 신유교사상에 대한 논문들이고, 영문 자료도 한국 젠더 이슈와 신유교사상에 대한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들이다.

세 번째 주제는 말레이시아 가족가치관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기존연구가 말레이시아 가족가치관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것이다. 한국 신유교사상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주제에 이슬람 사상에 대한 책과 논문을 포함했다. 이슬람과 유교사상을 비교대조하는 논문들은 이 주제에도 넣었다.

세계적과 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젠더와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들이 수도 많은 뿐만 아니라 종류도 갖가지이므로, 논문 목적과 가장 관련된 기존 연구, 즉, 조사 자료 분석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기존연구만 택했다. 위에 세 주제의 기존 연구를 사용하여 2006 동아시아사회조사와 2012 말레이시아가족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1.3. 자료와 방법

관련 자료는 2006년의 East Asian Social Survey(EASS)와 2012년

의 Malaysian Family Survey(MFS)를 선택하였다.⁵⁾ 2006년의 EASS와 2012년의 MFS는 가족의 가치에 관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회 조사는 둘 다 리커트 척도(rating scale)을 사용하였다. EASS와 MFS는 대규모 국가적 사회 조사였다. EASS는 비교적 오래된 자료이고, 본 논문의 사례 연구의 목적으로는 충분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의견과 연령층은 2006년도의 통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MFS는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인구 구성은 세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족과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이다. 말레이족(이하 말레이인이라 칭함)은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 말레이시아 가족 연구에 의하면, 말레이인의 99% 이상이 무슬림이었다.⁶⁾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2006년 EASS는 중국과 한국, 일본과 대만을 조사 연구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한국인의 응답을 사용했다. 19세에서 92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1,605명의 한국인이 응답을 했다. 2012년 말레이시아 가족 연구조사에서는 말레이인의 응답만을 사용했다. 18세에서 96세에 이르는 1,090명의 말레이인이 응답을 했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유교 영향을 받은 응답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인도 민족과 중국 민족을 제외한 순수한 무슬림 말레이인의 이슬람 영향을 받은 응답을 대조,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최근에 경제적 개발은 이루어졌으나, 신유

5) Kim, Sang-Wook (KGSS), Ying-Hwa Chang (TSCS), Noriko Iwai (JGSS), and Lulu Li (CGSS). East Asian Social Survey (EASS), Cross-National Survey Data Sets: Families in East Asia, 2006. ICPSR34606-v3.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Seoul, Korea: EASSDA [distributors], 2014-05-02. <http://doi.org/10.3886/ICPSR34606.v3>

6)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의 토속종교는 아니며, 모계 중심의 말레이시아 전통 adat에 배치됐다. 그러나 15세기 이래로 말레이시아의 전통은 이슬람을 포함하고 있다 (Andaya and Andaya, 1982: 301).

교주의(Neo-Confucianism)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이슬람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았기에 남녀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가족 가치관을 비교, 대조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관한 자료를 varimax-rotation 방식으로 주요한 성분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시아인의 가족 가치관의 지표(index)가 만들어졌다.

제 2장 1절의 기본 분석을 하고 나서, 2장 2절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전의 연구를 보면 이슬람세계와 유교사회가 권위주의와 엄격한 남녀의 역할 구별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관한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한 가족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장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두 나라 사이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이혼에 관하여 2 개의 변수를 적용했고, 동거의 원인 분석을 위해 2 개의 변수를 적용했으며, 성역할의 원인 분석을 위해 2개의 변수가 적용되었다. 기술(descriptive)적 분석과 피어슨 카이 제곱 통계량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와 회귀 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 연구의 설문을 비교하였다.

제 4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알려진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했다.

2. 한국인 · 말레이인 아시아적 가족가치관

전체적 조사 결과를 보면, 말레이인들과 한국인들의 가족가치관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양한 조사 문항들 가운데, 한국인과 말레이인들은 약 14개의 특정 조사 문항에 아주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그룹으로 나타났다.⁷⁾

결과는 한국의 가족 가치관은 나이별로 그리고 교육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말레이인은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 즉,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은 더

7) 이러한 그룹들은 가장 높은 크론바흐 알파 측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진보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교육과 나이에 상관없이 말레이인들의 가족가치관 변화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다.

다음 절에서 분석을 보면 말레이인의 주성분 요인이 깨끗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인의 주성분 분석은 중복한 변수가 많아서 생략된 변수가 많았다. 즉, 교육 받은 젊은 세대와 교육 덜 받은 노년층의 견해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과 말레이인들의 공통 가족가치관 요인들이 줄었다.

2.1. 말레이인과 한국인 가족가치관의 주성분 분석

상관의 정도가 강한 각 조사에서 가족 가치관에 대한 문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2012년 MFS와 2006년 EASS 조사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했다. 온 응답자들을 고려한다면 말레이인에게는 14개의 중요한 문항이 있었고, 한국인에게는 13개의 중요한 문항이 있었다. 추출된 가족 가치관에 대한 문항은 말레이인들만 v211의 문항(남성이 가사(家事)를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 v220(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며, 한국인들만 v200(남아 선호 사상)을 보여 주는 것을 제외하고 말레이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⁸⁾

2.1.1. 말레이인 가족가치관 주성분 분석

높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0.764)를 산출 2012 MFS로부터 가족 가치관에 관한 14개의 문항들이 있었다.⁹⁾ 이러한 14개의 문항을 사용하면서, varimax 의 주성분 진행과정은 14개의 요인들을 산출해냈다 (표 1). 이것은 중복되는 문항들이 없는 1의 유일한 가치가 있는

8) 남아선호 사상은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노년층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Chang and Gupta, 2007).

9) 설문 조사 양 쪽에 있는 문항들만을 사용했다.

요인들로 압축되었으며, 변수의 61%를 설명해주는 상위권의 4개의 요인들로 재배치하였다. 돌출한 요인의 기준으로서 0.40보다 큰 적재값을 사용하였고 표의 양식(pattern matrix)은 표 1에서 나타났다.

표 1의 4개의 요인들 가운데 (0.7보다 큰 크론바흐 알파)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가 있는 요인들은 F1, F3, F4이다. F2는 오직 크론바흐 알파 0.6을 갖고 있기에 신뢰도는 낮지만, F2 역시 포함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은 말레이인들의 가족 가치관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며, 다음의 논술에서 설명 될 것이다.

F3에서¹⁰⁾, v210은 남편은 직업을 가져 생계유지를 하고 부인은 가사(家事)를 돌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녀구별의 역할이 응답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각인(刻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V209는 남편의 사회적 경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아내의 내조가 아내 자신의 경력을 증진 시키는 것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V211은 남성이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현재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었다. 이 요인은 ‘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이라고 정의했다.

요인 4에 나타난 2개의 문항은, 부부 사이의 소통을 다루고 있으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소통방법’이라고 정의했다.

요인 1: 사회적 규범에 연관하여 생기는 행복 (크론바흐 알파=0.684)

요인 2: 권위주의/개인주의 대 집단적 가치관 (크론바흐 알파=0.605)

요인 3: 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크론바흐 알파=0.706)

요인 4: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소통방법 (크론바흐 알파=0.985)

10) F=요인, 이하 F를 요인이라 칭한다.

표 1: 전체적 말레이 가족 가치관의 주성분 분석 결과

(n=1,090, 크론바흐 알파=0.764, KMO=0.668, Bartlett's $p < 0.001$)				
변수 요약	F1	F2	F3	F4
v204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 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866	.192	.144	.040
v205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856	.211	.165	.037
v220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요즘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561	-.103	.095	-.014
v202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449	.147	.049	.020
v213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301	.711	.032	.004
v218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친정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177	.669	.200	.129
v214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54	.597	.084	.134
v217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024	.597	-.007	.035
v219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322	.498	.297	-.069
v210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벌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72	.012	.821	.022
v209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011	.106	.763	.011
v211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욱 많이 분담해야 한다.	.281	.196	.748	.022
v232 귀하는 다음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배우자는 나의 어려운 문제에 귀를 기울인다.	.028	.082	.023	.987
v233 귀하는 다음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배우자는 자신의 고민을 내게 털어 놓는다.	.038	.095	.018	.986
고유 값	2.463	2.093	2.013	1.992
설명된 분산 (총 61%)	18%	15%	14%	14%
수출법: 주성분 분석				
회전법: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위의 요인들은 말레이인의 가족가치관을 대표하는 요인이다. 논문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달리, 이런 가치관들은 말레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관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할 만한 것은 위의 추출된 말레이 가족 가치관의 문항들은, 말레이인만의 중요한 v211의 문항(남성이 가사를 돌보아야 하는지)과 v220의 문항(삶의 만족도)을 제외하고, 말레이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공통된 가치관이었다.

2.1.2. 한국인 가족가치관 주성분 분석

여기서는 2006년의 EASS에 의한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을 분석했다. 연령과 교육정도에 따라 가족 가치관의 변화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 말레이 사람들과 달리,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연령과 교육정도에 따라 가족 가치관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여 주었다 ($p < 0.001$).

모든 한국인에 대한 문항들을 집계(集計, grouping)하여 13 개의 문항들을 산출했을 때 상위권의 4개는 1 이상 고유 값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견해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났고 5개의 문항(v202, v218, v210, v209, v200)은 중복되었다. 이 문항들에서 한국의 세대와 교육정도에 따른 견해 차이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중복된 5개의 문항들을 생략하고 난 후에, 0.666의 크론바흐 알파가 있는 8개의 문항이 남았다. 이 8개 문항을 분산의 극대화 한 결과 3개의 요인들로 정리하였다. 이 요인들 또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 0.7 정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이런 가치관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복되는 문항들을 생략하고 난 후, 상위권의 3개의 요인들은 문항의 66%를 차지했다. 표 2 는 돌출 요인의 기준으로서 0.4 보다 큰 요인적재 값을 보여 주었다. 3개의 요인 중 2개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0.7 보다 큰 크론바흐 알파)를 보여 주었다.

첫 번째 요인은 유교적 가치관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들 중 3개 문항에서 크론바흐 알파 테스트를 적용 한 결과 젊은 세대는 수치가 낮았고, 노인층 세대는 그 수치가 높았다. 이 요인은 ‘유교적 가족 가치관’이라고 불리고 젊은 세대는 이 가치관을 평가절하(切下)했기 때문에 크론바흐 알파 테스트 수치가 낮았다.

두 번째 요인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행복 지수에 대한 2개의 문항이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 지수’라고 정의했다. 이 요인은 노인층 세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성(持續性)이 있지만 한국인의 모든 세대에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0.7이상).

세 번째 요인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2개의 문항이다. 이것은 “의사소통을 통한 결혼 생활의 만족도”라고 정의했다. 이 요인은 내적인 지속성(0.7이상)이 있었다.

요인 1: 남녀평등에 대한 권위주의적 이념 = 유교적 가족 가치관 (크론바흐 알파=0.640)

요인 2: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 지수 (크론바흐 알파=0.866)

요인 3: 의사소통을 통한 결혼 생활의 만족도 (크론바흐 알파=0.746)

위의 주성분 분석의 문항들은 모두 한국인들과 말레이인들에게도 공통된 가치관이었다. 요인도 똑같이 나왔다. 단, 말레이인들은 문항들이 중복되지 않아서 뚜렷한 요인들과 문항들이 더 많이 나왔다 (표 3).

표 2: 전체적 한국 가족 가치관의 주성분 분석 결과

(n=1,605, 크론바흐 알파=0.666, KMO=0.617, Bartlett's $p<0.001$)			
변수 요약	F1	F2	F3
v214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750	.041	.103
v219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677	.073	.081
v213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673	.060	.049
v217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632	.145	-.037
v205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103	.931	.062
v204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152	.921	.055
v232 귀하는 다음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우자는 나의 어려운 문제에 귀 기울여준다.	.039	.059	.891
v233 귀하는 다음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우자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털어 놓는다.	.103	.049	.886
고유 값	1.919	1.752	1.607
설명된 분산 (총 66%)	24%	22%	20%
수출법: 주성분 분석			
회전법: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예상 되었던 대로, 세대와 교육정도에 따른 견해차에 의한 중복된 문항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분석은 불완전한 결과를 초래했다. 후에 3장에서, 이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를 해석할 때, 여기 생략된 문항 중 성역할에 대한 2개의 문항도 다를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국인의 세대차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러나 2장 2절에서 한국인과 말레인의 공통 아시아 가치관을 먼저 볼 것이다.

표 3: 전체적 한국인과 말레이인 가족 가치관 요인

모든 한국인	모든 말레이인
F1 1) v213 2) v214 3) v217 4) v219	F2 1) v213 2) v214 3) v217 4) v218 5) v219
F2 1) v204 2) v205	F1 1) v202 2) v204 3) v205 4) v220
n/a	F3 1) v209 2) v210 3) v211
F3 1) v232 2) v233	F4 1) v232 2) v233

2.2. 아시아 가치관 지수: 한국인과 말레이인

2장 1장에서 한국인과 말레이인이 어떻게 비슷한지 보았다. 2장 2절에서는 짧게 한 번 더 한국의 유교 가치관과 말레이의 이슬람 가치관이 얼마나 밀접한 지 볼 것이다. 이전의 연구는 2006년 EASS의 한국과 일본, 대만의 가족 가치관을 분리시키고 유교적 ‘아시아 가치관’이라는 요인을 찾았다 (Eun, 2013). 유교와 이슬람의 이념을 비교대조하기 위해,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 나왔던 ‘아시아 가치관’을 대표하는 9개의 문항들을 사용했다. 알파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2장 1절에서 이미 분석한 것처럼 한국인의 유교적 아시아 가치관과 말레이인의 이슬람적 아시아 가족 가치관은 내적인 일관성이 각각 다르지만 중복되는 점이 있었다 (표 4).¹¹⁾

11) 한국의 드라마는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인기가 많다: 드라마 속의 유교적 가족 간의 대립은 이슬람 가족 간의 대립의 변수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의 주제는 이슬람 세계의 문화에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동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것은 한류라는 명칭으로 한

표 4: 아시아 가치관을 대표하는 가족 가치관의 크론바흐 알파

	한국인	말레이인 ¹²⁾
크론바흐 알파	0.809	0.607

아시아의 가족 가치관의 전반적 지표 = 9 개의 변수의 가치관의 종합/9

기존 연구에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을 비교했을 때 만든 ‘아시아 가치관’의 지수도 이 연구에 말레이인과 한국인의 아시아 가족 가치관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한국인과 말레이인에 있어서 아시아인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와 각 순위의 가치관의 수단을 측정했다 (Eun, 2013; 표 5).

아시아의 가족 가치관의 저조한 지표(index)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음(더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지표에 의하면, 말레이 사람들이 한국인들 보다 강한 아시아 가족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말레이인은 거의 각 각 문항(그래프 1)에 대해서 보다 저조한 순위 - 높은 수치의 동의를 의미하는 저조한 지표-를 보여줬다. 이것은 말레이족이 아시아 가족 가치 지표에서 거의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한국보다 ‘유교적’임을 보여줬다.¹³⁾ 하나의 예외는 v219(개인보다 가족 우선의 가족 가치관)가 말레이인보다 한국인이 높은 수준인 것이었다.¹⁴⁾

국에 경제와 문화의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12)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항들의 그룹은 높은 크론바흐 알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v212가 제외되었을 때 말레이인들은 크론바흐 알파가 0.625로 상승되었다.

13) 말레이인들은 기존 연구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대만 보다 저조한 지표(보다 보수주의적)를 보여줬다 (Eun, 2013).

14) 문항 v210은 말레이인들보다 대만 사람들이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일본보다는 덜 보수적인 것을 보여 주었다.

표 5: 아시아 가족 가치관의 문항과 각 수치의 평균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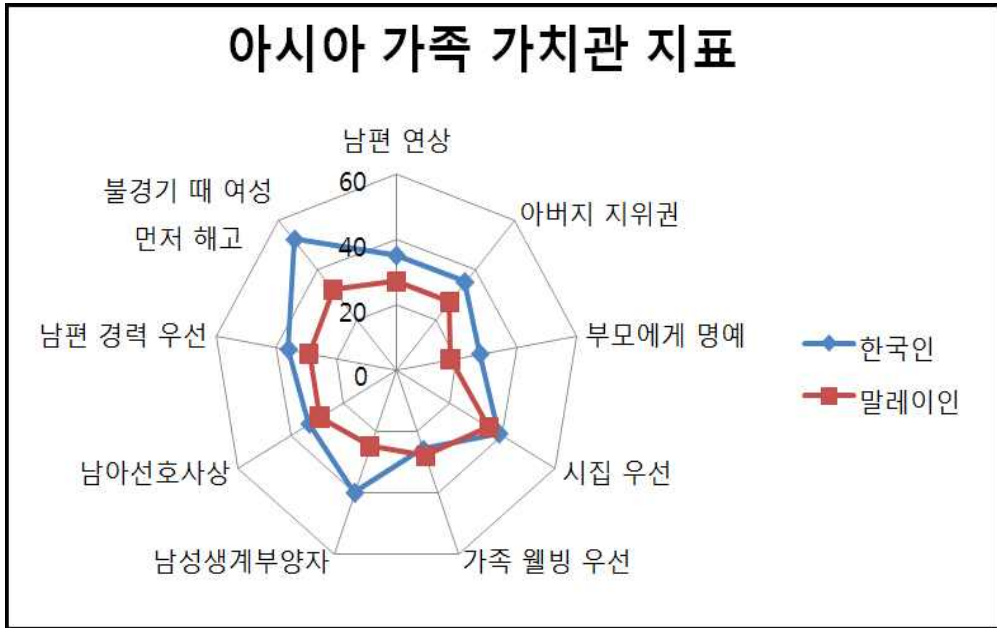
지표와 각 변수	한국인	말레이인
아시아 가족 가치관의 지표	3.5(1.6)	2.7(1.2)
V202 연상의 남편	3.5(1.5)	2.7(1.3)
V213 아버지의 지휘권	2.4(1.3)	1.9(0.8)
V214 자식 부모에게 명예	2.8(1.4)	1.8(0.8)
V218 친정보다는 시집을 우선	3.9(1.6)	3.5(1.3)
V219 가족 웰빙 우선	2.6(1.3)	2.8(1.1)
V210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4.0(1.8)	2.5(1.1)
V217 남아선호사상	3.3(1.7)	2.9(1.5)
V209 남편의 경력 우선	3.6(1.7)	2.9(1.4)
V212 불경기 때 여성 먼저 해고	5.2(1.6)	3.2(1.6)

주목: () = 표준 편차

비록 말레이인들에 대한 9 개의 가족 가치관에 관한 문항이 내적인 신뢰성을 결정하는 차단 표식(cutoff mark)인 0.7에 달하지는 않았지만(0.607),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수치들은 한국인들 보다 말레이인들 사이에서 훨씬 낮았다. 즉, 더 보수적임을 나타냈다 (그래프 2).¹⁵⁾ 즉, 말레이인의 이슬람 가족 가치관은 한국인의 유교적 가치관보다 더 과장된 ‘유교적 가치관’을 보여 주었다.

15) 말레이인들에 대한 이 9개의 문항들의 내적인 일관성은 크론바흐 알파수치로 0.7이하이기 때문에, 후에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이슬람의 가족가치관의 본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항들이 필요하다.

그래프 1: 가족가치관에 관한 공통된 문항에 대한 수치의 평균



주목: 보기 쉽게하기 위해 수치의 평균을 10배 곱함.

그래프 2: 아시아 가족가치관 일관성 대 아시아 가족가치관의 지표



3. 한국인 · 말레이인 이혼과 동거 및 성역할 개념

지난 2장에서는 한국인과 말레이인의 공통 가족가치관을 분석했다. 그러나 각 그룹의 차이점을 아직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3장에서 이혼, 동거 그리고 성역할 같은 중요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한다.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인과 말레이인에게 동거에 관하여는 유사한 가족가치관이 많지만, 이혼 태도에 관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슬람 사회가 높은 이혼율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반면에, 유교적인 가치관의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Goode, 1993: 214, 251; Karim, 1990: 26; Stivens, 1996: 190). 더욱이 교육을 덜 받은 한국 노년층은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젊은 층 보다 더 유교적 가족가치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레이의 가족 가치관과 더 유사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족가치관의 주성분을 분석했을 때 중요한 성역할 관련된 문항을 생략했었다. 3장에는 생략된 성역할에 대한 문항들 중 2개를 사용한 성역할 분석도 포함했다.

각 연령층에 있어서 중요한 양상이 간과되지 않기 위해서 성별, 연령, 교육적 배경 등에 따라 신중한 분석을 위한 특정한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2개의 문항은 이혼의 분석을 위해서, 2개의 문항은 동거의 분석을 위해서, 2문항은 성역할의 분석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이 문항들은 2006 EASS와 2012 MFS 문항에서 선택되었지만 2장에서 이미 다른 문항들이 아니다. 단, 성역할 문항들은 2장에 이미 나왔지만, 한국의 세대와 교육정도에 따른 견해차 때문에 생략 되었으므로, 3장에서 사용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사회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도계나 중국계가 아닌 순수한 말레이 종족의 응답만을 사용했다. 설문지 연구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과 카이 제곱 비교와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3.1. 이혼

다음의 진술에 대한 응답은 이혼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1. V207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V208 부부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앞의 부분에서 보았듯이, 한국인과 말레이인들의 의견은 상당히 달랐다 (표 6). 그러나 이것은 이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때문이 아니고, 이혼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의 이념에 따른 것이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이혼이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고, 말레이 사회에서는 용납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었다.

표 6: 이혼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 카이 제곱 통계 값

	Q1: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Q2: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면 이혼 해결책 최선
한국인*말레이인	$X^2=203.728***$	$X^2=337.339***$

1,605 명의 한국인 가운데,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견해차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 남성(714명), 한국인 여성(891명)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문 1, 2 에 대하여 귀무가설은 거부되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이혼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1,090명의 말레이인들 가운데, 남성(537명)과 여성(553명)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은 질문 1, 2를 보여 주었고, 귀무가설(null hypothesis, 歸無假說)은 거부되었다. 말레이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이혼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표 7).

표 7: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카이 제곱 통계 값

	성*Q1: 이혼을 원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성*Q2: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면 이혼이 최선의 해결책
한국인	8.824	12.268
말레이인	4.030	6.883

연령에 따라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그리고 60 대 그 이상으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차이점을 측정하였다.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사용했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거부된 경우에 회귀 계수를 계산하였다. 한국인들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상이한 견해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은 한국의 남녀 관계에 대한 2 개의 진술에 대해 수용되었다(표 8). 말레이인들에게서는 연령별에 따른 견해차는 볼 수 없기에 이 문항들에 대한 귀무가설은 거부되었다. 평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남녀 모두 이혼에 대해서는 거의 중립성을 띄고 있었다 (개별적으로 평균은 3.65, 3.49).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고령화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말레이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연령별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았다.

표 8: 나이별 이혼에 따른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나이*이혼을 원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이*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면 이혼이 최선의 해결책
한국인	$X^2=126.805^{***}$ $R^2=0.035$, $F=57.988^{***}$, $B=-0.026$, $t=-7.615^{***}$	$X^2=130.153^{***}$ $R^2=0.005$, $F=8.394^*$, $B=0.01$, $t=2.897^{**}$
말레이인	$X^2=34.471$	$X^2=19.305$

표 9에서 보듯이, 이혼을 준비 중이더라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한국인들의 의견은 연령층이 젊을수록 거의 중립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젊은 층은 결혼 생활에서 오는 심각한 가정불화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보다는 중립성을 띄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말레이 사람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에 관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

표 9: 연령차에 따른 이혼 가치의 평균

나이	말레이인 Q1	한국인 Q1	말레이인 Q2	한국인 Q2
20대	3.6	4.0	3.4	4.1
30대	3.7	3.8	3.6	4.2
40대	4.0	3.2	3.6	4.3
50대	3.9	3.3	3.3	3.9
60+	3.5	2.9	3.5	4.7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한국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말레이인은 모든 층의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10).

표 10: 교육정도에 따른 이혼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교육*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육*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면 이혼이 최선의 해결책
한국인	$X^2=106.126^{***}$ $R^2=0.016$, $F=26.686^{***}$, $B=0.237^*$, $t=5.166^{***}$	$X^2=107.437^{***}$ $R^2=0.001$, $F=3.037$, $B=-0.078^*$, $t=-1.743$
말레이인	$X^2=43.804^*$ $R^2=0.001$, $F=1.544$, $B=0.018$, $t=1.243$	$X^2=33.418$

한국인의 교육과 이혼 문제에 대한 중립성은 상관관계가 매우 깊었다 (표 11). 그러나 말레이인들에게서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과 교육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표 11: 교육정도에 따른 이혼 가치의 평균

교육	말레이인 Q1	한국인 Q1	말레이인 Q2	한국인 Q2
없음	3.0	3.0	2.7	5.0
1-6 년	3.1	2.6	2.5	4.1
7-12 년	2.9	3.4	2.5	4.2
13-16 년	2.8	3.6	2.5	4.2
17 +	3.2	3.6	2.3	4.2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말레이인 두 종족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이혼을 보류한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말레이인들과 교육을 받은 젊은 한국인들은 자녀의 양육과 이혼의 보류에 대해 관련성이 적었다. 말레이인들은 결혼 생활에서 오는 가정불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혼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성별, 연령, 교육과는 거의 무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이혼이 가정불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교육 수준이 낮은 노년층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의 한국인들은 이혼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띄고 있었다.

3.2. 동거

말레이인과 한국인은 이혼에 대한 태도가 다른 데 반해 동거에 관한 태도가 상당히 비슷했다.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와 3 세대 동거의 두 가지 동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의 2개의 진술에 대한 응답이 동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1. V206 결혼한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 V250 귀하는 3대(노부모, 결혼한 자녀, 손자녀)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레이인들의 견해는 한국인의 응답과는 상당히 달랐다 (표 12). 이것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동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답변을 보여 주었지만, 각 각의 문항에 있어서 동거의 동의 정도(degree)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더 젊을수록, 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한국인이 동거에 대해 더 찬성하는 추세였다. 반면에

말레이인들은 성별, 연령, 교육과는 무관하게 큰 차이점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12: 동거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 카이 제곱 통계 값

	남녀 동거	3 세대 동거
한국인*말레이인	498.630***	85.372***

성별에 따른 동거 차이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1,605명의 표본 가운데, 동거에 대해서 남성(714명)과 한국 여성(891명)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문항 1, 2에 대해서, 귀무가설은 수용되었다. 남녀 동거에 대한 권위주의적 의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동거에 대해 덜 찬성하는 편이었다. 게다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이 3 세대 동거에 대해서 찬성했다.

말레이의 자료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1,090명의 표본 가운데, 동거 문항에 대해서 남성(537명), 여성(553명)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자료는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1에 대해서, 귀무가설이 수용되었지만, 질문 2 에 대해서 귀무가설은 거부했다. 말레이인에 있어서 남녀 동거는 모두 찬성하지 않았지만 말레이 여성이 약간 덜 찬성했다. 이러한 추세는 표 13의 회귀 분석에서 볼 수 있다.

표 13에서 보듯이, 말레이와 한국의 남성들이 동거에 대한 태도가 여성보다 약간 많았지만, 남녀 간의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표 13: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카이 제곱 통계 값

	성*남녀 동거	성*3 세대 동거
한국인	$X^2=8.275^*$ $R^2=0.000$ $F=35.518^{***}$, $B=2.793$, $t=17.866^{***}$	$X^2=35.963^{***}$ F 테스트 불합격.
말레이인	$X^2=14.629^{**}$ $R^2=0.000$ $F=0.524^*$, $B=1.442$, $t=15.722^{***}$	$X^2=0$, 100% 3 세대 동거 찬성

동거에 따른 차이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령층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그리고 60 대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했다. 귀무가설이 수용된다면, 회귀 분석을 시행했다. 한국인들은 각 연령층이 동거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각각의 한국인들의 응답에 적용되었다 (표 14). 한국인에게는, 나이와 동거가 상관이 있으나, 말레이에 있어서는 나이와 동거에 대한 귀무가설은 거부되었다.

표 14: 나이별 동거에 따른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나이*남녀 동거	나이*3 세대 동거
한국인	$X^2=216.228^{***}$ $R^2=0.84$, $F=142.447^{***}$ $B=3.723$, $t=142.447^{***}$	$X^2=48.191^{***}$ $R^2=0.006$, $F=9.953$, $B=3.235$, $t=21.683^{***}$
말레이인	$X^2=38.204$	$X^2=0$, 모든 답은 동의함.

동거에 대한 견해 차이는 표 18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장과 3장의 통계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인들은 연령과 거의 상관없이 일정하게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연령에 따라 동거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음 보여주었다 (표

15). 젊은 한국인들은 남녀동거와 3 세대 동거에 대해서 더 찬성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동거에 대한 입장은 말레이 사람들이 한국인 보다 말레이 사람들이 훨씬 보수적인 것이었다.

표 15: 연령차에 따른 동거 가치의 평균

나이	말레이인 Q1 남녀 동거	한국인 Q1 남녀 동거	말레이인 Q2 3 세대 동거	한국인 Q2 3 세대 동거
20대	6.3	4.4	2.0	3.5
30대	6.4	4.8	2.0	3.6
40대	6.2	5.2	2.0	3.6
50대	6.4	5.7	2.0	3.9
60+	6.4	5.7	2.0	4.0

표 16는 말레이인들은 비슷한 응답을 한 반면에, 한국인들은 교육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6: 교육정도에 따른 동거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교육*남녀 동거	교육*3 세대 동거
한국인	$X^2=100.115^{***}$ $R^2=0.026$, $F=42.208^{***}$ $B=5.731$, $t=52.869^{***}$	$X^2=15.155^*$ $R^2=0.001$, $F=1.573^*$, $B=3.829^*$, $t=29.983^{***}$
말레이인	$X^2=13.596$	$X^2=0$, 모든 답은 동의함.

표 17은 한국인들은 모든 경우에서 여전히 대답이 보수적이지만,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남녀동거와 3 세대 동거에 대한 태도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3 세대 동거가 나이별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가치관 변화보다 경제적인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남녀와 3 세대 동거에 대한

질문은 말레이인이 교육 수준과는 무관하게 강한 보수적 가치관을 보여줬다.

표 17: 교육정도에 따른 동거 가치의 평균

교육	말레이인 Q1	한국인 Q1	말레이인 Q2	한국인 Q2
없음	6.5	5.2	2.0	3.4
1-6 년	6.4	5.8	2.0	4.0
7-12 년	6.3	5.3	2.0	3.7
13-16 년	6.5	4.9	2.0	3.6
17 + 년	6.2	4.6	2.0	3.6

일반적으로, 젊고 고학력을 가진 한국인들은 동거에 대해서 더 찬성하고, 한국의 남성은 여성보다 동거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 말레이 남성은 조금 더 남녀동거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말레이 남성과 여성은 성별과 연령층과 상관없이 비교적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말레이인은 동거에 대한 연령에 따른 상이한 응답은 거의 없었다.

3.3. 성역할

2장에서 한국인과 말레이인의 가족가치관을 분석했을 때 한국인의 성역할이 제일 많이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2장에서는 중복된 변수들이 몇 개 있었고 각각의 나이층과 교육 층에 따라 자세하게 볼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과 말레이인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요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2개의 성역할 변수들을 분석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1. V209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V210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인과 말레이인은 성역할에 대한 유사한 가족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남녀 관계의 성역할에 있어서 말레이인이 한국인보다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18에서 보듯이, 각 사례에서, 말레이 여성은 남편의 사회 활동을 도와야 하며,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녀 구별된 역할이 한국 사회보다 말레이 사회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Yoshida, 2011: 11; 그림 1; 그림 2).

표 18: 성역할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 카이 제곱 통계 값

	Q1. 남편의 경력 우선	Q2. 남성생계부양자
한국인*말레이인	$X^2=298.986***$	$X^2=707.755***$

그림 1: 말레이인의 뚜렷한 성역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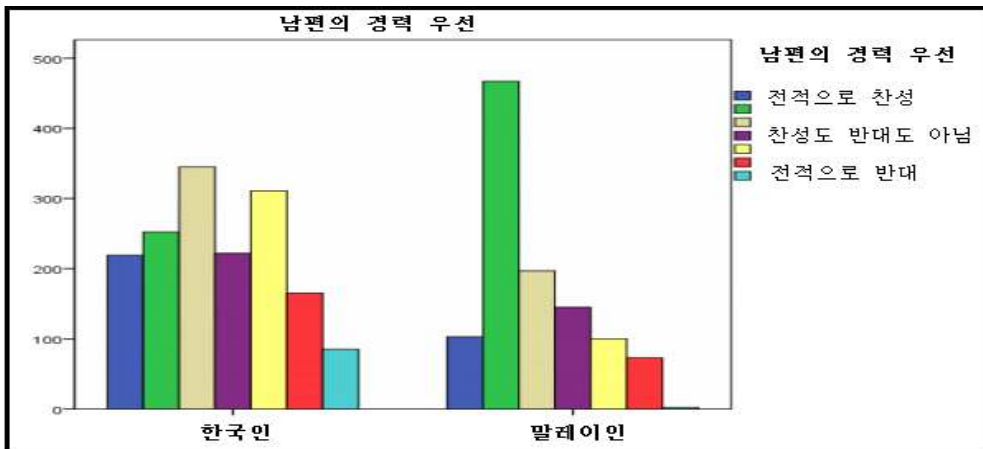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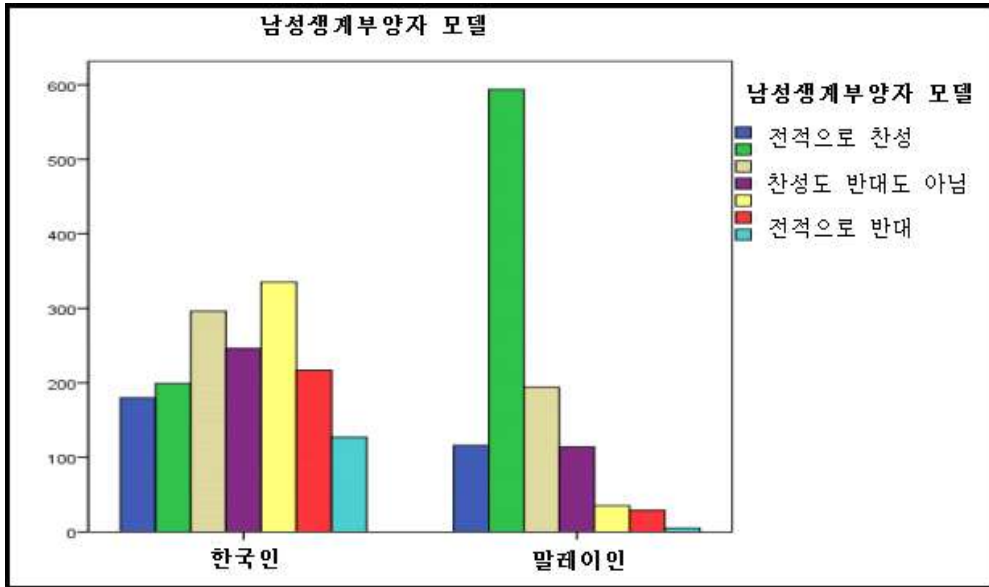


그림 2: 말레이인의 뚜렷한 성역할 2



3장 앞부분에서 제시했듯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이 적용되면 회귀 분석의 시행과 더불어 카이 적합도 검정도 시행하였다. 한국인 1,605명 가운데, 남성 (714명)과 여성(891명)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먼저 문항 1에 대해서 귀무가설은 거부됐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아내가 남편의 사회 경력을 아내의 사회 경력에 우선하여 도와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문항 2에 대해서는 귀무가설이 작용됐다. 카이 제곱과 P 수치가 의견 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남성은 생계유지를 해야 하며 여성은 집안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문항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줬다.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이었다. 여성의 평균은 4.070이었으며, 남성이 평균은 3.80이었다 (표 19).

말레이인 1,090명 가운데, 남성(537명)과 여성(553명)은 성역할에 관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피어슨 카이 제곱 통계 값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말레이 남성과 여성은 아내는 남편의 사회 경력을 위해서 내조를 하며 집안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표 19: 성별에 따른 성역할에 대한 카이 제곱 통계 값

	Q1. 성*남편의 경력 우선	Q2. 성*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한국인	$X^2=9.701$	$X^2=13.043^*$ $R^2=0.005$, $F=8.988^{**}$, $B=0.267$, $t=2.998^{**}$
말레이인	$X^2=6.625$	$X^2=3.526$

권위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연령별 차이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령층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와 60 대 그 이상으로 분류하여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했다. 귀무가설이 작용되어 회귀 계수가 계산되었다. 한국인들에게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각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한국인의 남녀 관계에 대한 2 개의 문항에 귀무가설이 작용됐다 (표 20). 말레이의 아내의 남편에 대한 내조를 묻는 문항 1에 대한 응답에 귀무가설이 처음으로 적용됐지만 회귀 분석에 대한 모델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진술은 성역할에 대하여 말레이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므로 성역할은 한국에서는 고령화됨에 따라 보수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말레이는 연령층에 따른 성역할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0: 나이별 성역할에 따른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Q1. 나이*남편의 경력 우선	Q2. 나이*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한국인	$X^2=296.028^{***}$ $R^2=0.151$, $F=277.171^{***}$, $B=-0.051$, $t=-16.648^{***}$	$X^2=341.803^{***}$ $R^2=0.167$, $F=312.202^{***}$, $B=-0.054$, $t=-17.669^{***}$
말레이인	$X^2=42.167^*$ $R^2=0.001$, F 테스트 불합격.	$X^2=25.543$

표 21은 연령별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가치관은 남녀평등의 추세에 강하게 나타났다. 즉, 진보적 성향의 성역할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보수적 성향의 노인층의 가치관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표 21).

표 21: 연령차에 따른 성역할 가치의 평균

나이	말레이인 Q1	한국인 Q1	말레이인 Q2	한국인 Q2
20대	2.8	4.6	2.5	4.8
30대	3.0	4.0	2.4	4.4
40대	3.0	3.5	2.6	4.0
50대	3.1	3.1	2.8	3.3
60+	3.0	2.5	2.5	2.6

또한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에 따라 성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주었다 (표 22).

표 22: 교육정도에 따른 성역할 카이 제곱 통계 값과 회귀 계수 값

	Q1. 교육*남편의 경력 우선	Q2. 교육*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한국인	$X^2=303.480***$ $R^2=0.144$, $F=270.611***$, $B=0.381$, $t=16.450***$	$X^2=292.877***$ $R^2=0.145$, $F=271.148***$, $B=0.677$, $t=16.467***$
말레이인	$X^2=81.878***$ F 테스트 불합격.	$X^2=38.706*$ F 테스트 불합격.

교육 수준이 낮은 한국인들은 보수적인 남녀 관계에 동의를 한 반면에, 대학교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진보적이었다 (표 23). 그러나 말레이 사람들은 남녀 관계와 교육 수준이 무관한 것을 보여줬다.

표 23: 교육정도에 따른 성역할 가치의 평균

교육	말레이인 Q1	한국인 Q1	말레이인 Q2	한국인 Q2
없음	3.0	2.4	2.7	2.2
1-6 년	3.1	2.5	2.5	2.7
7-12 년	2.9	3.2	2.5	3.7
13-16 년	2.8	4.2	2.5	4.4
17 + 년	3.2	4.5	2.3	4.8

한국인과 말레이인에 있어서 응답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남녀 관계에 대한 의견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대한 의견은 연령과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젊고 교육을 받은 세대는 더 진보적인 성역할의 가치관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레이인은 성별, 연령, 교육과는 상관없이 성역할이 보수적이었다.

3.4. 한국인과 말레이인의 보수주의 지수

결론적으로, 동거와 이혼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한국인과 말레이인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표(index)를 만들었다. 범주(category)에 있는 각 변수에 응답자의 평균(mean)을 계산하여, 변수들의 숫자로 전체와 평균을 분할하였다. 그리하여 동거의 지표, 이혼의 지표, 남녀관계의 지표, 보수성의 정도를 계산하였다.¹⁶⁾ 말레이인들이 전반적인 일관성이 강해서 전체 말레이인을 한 집단으로 살폈고, 한국인은 연령별, 교육 수준별로 상이한 가족 가치관을 보였기 때문에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폈다. 2장에서의 구분과 유사하게, 양극화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세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한국의 대학 교육을 받은 30대와 그 이하(한국인 A: 467명), 두 번째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50대와 그 이상의 연령층(한국인 B: 390명),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한국인(한국인 C)으로 나누어 살폈다 (표 24).

수치가 4 이하인 중립적인 한국인과 말레이인의 보수주의 분포를 보면 집단별 특징이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말레이인이 전체적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보다 보수적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 중 저학력의 노년층은 말레이인만큼 보수적이었다.

16) 변수 v208와 v206의 숫자는 하위숫자에 대해서 높은 보수주의의 일관성에 대해 4개 축(중립성)에서 반전되었다.

표 24: 보수주의 지표: 동거와 이혼 그리고 성역할

지표와 각 변수	젊고 고학력 한국인 (한국인 A)	저학력 노년층 한국인 (한국인 B)	전체적으 로 한국인 (한국인 C)	말레이인
동거 지표	2.5(1.7)	2.6(1.8)	2.8(1.8)	1.3(1.1)
V206 남녀 동거 반대	2.4(1.6)	1.3(1.5)	1.9(1.6)	0.7(1.1)
V250 3 세대 동거 찬성	2.6(1.9)	4.0(2.0)	3.7(1.9)	2.0(0.0)
이혼 지표	3.4(1.6)	3.3(2.0)	3.6(1.8)	4.1(1.6)
V207 이혼은 자녀 정상할 때까지 기다림	3.9(1.7)	3.0(1.9)	3.4(1.8)	3.7(1.6)
V208 이혼 ≠ 갈등 해결	2.9(1.5)	3.6(2.1)	3.8(1.8)	4.5(1.6)
성역할 지표	4.6(1.5)	2.6(1.6)	3.8(1.2)	2.7(1.3)
V209 남편의 경력 우선	4.5(1.5)	2.6(1.5)	3.6 (1.7)	2.9(1.4)
V210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4.7(1.5)	2.7(1.6)	4.0(1.8)	2.5(1.1)
보수주의 지표	3.5(1.6)	2.9(1.8)	3.4(1.8)	2.7(1.3)

주목: () = 평균 (표준 편차)

그러나 이혼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연령층의 한국 사람들은 말레이 사람들 보다 보수적이었다. 이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혼이 혼하다는 점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동거도 말레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모든 층의 말레이인들은 남녀 동거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3 세대 동거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환영한다. 반면, 한국 사회에 모든 한국인이 동거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남녀동거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이고 3 세대 동거에 더 강하게 동의한다.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말레이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젊고 고학력의 한국인들은 덜 보수적이었으며, 유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덜 받았다. 즉 젊거나 고학력의 한국인은 혈통적으로 여전히 아시아인으로 간주되는 데 반해 그들이 가진 가치는 전통적 아시아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응답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과 분석과 논의

여러 논의에서 아시아적인 유교 가족 가치관을 아시아의 유교 국가들이 경제 발달의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Eun, 2013: 102-103). 그러나 다른 경제적으로 발전한 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은 또한 탈유교적 가설에 도전하고 있다 (Kim, 1994: 87).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이슬람과 유교 이데올로기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 (Abdullah, Shukra and Othman, 2011; Angle, 2013; Centinkaya, 2011; Hoh and Wheeler 2012: 3).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사례 연구는, 유교와 이슬람 사회 각각에 대한 사례들로서, 핵심적인 유교 가치들이 이슬람 사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교적’ 가치는 말레이시아의 가족 가치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 가치는 말레이시아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교 사상으로 대표되는 핵심적인 한국인의 가치는 한국인들보다는 오히려 말레이인들에게서 더욱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그러므로 이 연구의 양적 결과와 기존 연구의 질적 결과는, 이슬람적인 가치들이 (적어도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있어서) 유교적 가족 가치와

17) 예를 들어서, ‘효도’는 한국인보다 말레이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말레이인에 대한 기존 연구 역시 말레이 사회 안에 의무와 효도를 강조했다 (Aziz and Yusoff, 2012: 186, 191).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후 유교적 개발(post-Confucian development)' 가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말레이시아 사회에서의 유교적 가족 가치의 발견보다도 유의미하게 볼 것은, 한국인의 가족 가치는 변화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인들의 가족가치는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젊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에게서 가족 가치는 훨씬 더 남녀평등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점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었다 (이현우·이정진, 2013: 57). 반면 말레이인들의 가족 가치에 대한 응답은 성별, 연령, 교육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도 빠른 산업화와 근대화가 가족 가치의 파손을 이끈다는 일반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인들에게서는 세대 간의 관계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조화롭다는 점을 입증했다 (Aziz and Yusoooff, 2012: 191, 195). 그러므로 이 4장에서의 분석은, 한국에서는 발견되지만 말레이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세대 간의 구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겠다.

Inglehart는 세대 간 가치의 차이에 대한 이러한 형태를 수렴현상(convergence) 대 고집현상(persistence)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Inglehart and Baker, 2000: 20, 33; Inglehart and Welzel, 2005: 19; Schwartz, 2006: 177).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문화 권역에 따라 다양했으며, 연구자들은 최소한 7개의 세계적인 문화 권역으로 분리했다 (Ibid.). 수렴현상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험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통적 가치에 근대화 기간 동안 들어오는 서구적 가치들을 융합시킨다. 예컨대 19세기의 신유교적 한국 사회의 중상층 여성들은, 그녀들이 집을 벗어날 때 자신들의 머리와 얼굴을 가렸지만 (Choi, 2009: 48), 이러한 관습은 21세기에는 없어졌다. 대조적으로 고집현상(persistence)은 경제적 개발과 세계화로부터 전통적인 가치들의 변화를 분리시킨다. 이것은 이슬람 문화 권역에서의 말레이시아를 설명한다. 앞서 든 한국인들의 사례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1980년대 이후 이슬람 가치의 부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베일을 사용했다. 이러한 베일 착용은 ‘서구의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거부’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Abu-Lughod, 2002: 786; Stivens, 1996: 211-212).

수렴현상과 고집현상을 결정하는 이러한 문화 권역들은, 개신교, 정통 기독교, 이슬람, 유교와 같은 역사적으로 널리 퍼진 신앙 체계와 전통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Inglehart and Baker, 2000: 33; Inglehart and Welzel, 2005: 19; Schwartz, 2006: 177).¹⁸⁾ 신앙 체계들은 오랫동안 쉽게 변하지 않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쉽게 복원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Inglehart and Welzel, 2005: 20). 사회적 가치관들은 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가치들은 계속해서 사회의 역사적 유산을 반영한다 (Ibid.).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 내에서의 수렴현상과는 반대로, 말레이시아 내의 말레이인들의 가정 가치에서는 고집현상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이러한 종교-사상적 요인 때문이다 (Abdullah, Shukri and Othman, 2011: 143, 150; Cetinkaya, 2011: 142; Hushin, F., personal communication, Apr. 9, 2014; Inglehart and Baker, 2000: 33; Inglehart and Welzel, 2005: 19; Kim Kyong-Dong, 1994: 89; Rahman, 2011: 199; Schwartz, 2006: 177; Stivens, 2006: 354-362; Stivens, 2010: 399; Toynbee, 1956: 35).

종교 문화는 문화 권역을 구분 짓는 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교적인 문화권역에 위치한 한국인의 가치가 어떻게 근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반면 이슬람 문화권역에서 말레이인들의 가족 가치관은 어떻게 근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를 해석하기 위해 종교적인 이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Toynbee는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종교는 3단계로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Toynbee, 1956: 18, 110). 자연승배,

18) 서울대 교수 김경동은, 근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가치관은 기존 사회 현상에 의존하면서 변한다는 Inglehart의 견해에 동의했다. 김경동은 “외국 침입자들에 대한 정보 수준과 침입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대비 수준은, 자신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고 말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준비” 라고 불렀다 (Kim Kyong-Dong, 1994: 89).

인간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무결한 현실(Absolute Reality)’을 숭배하는 유대교, 이슬람 또는 기독교와 같은 고등 종교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Ibid.).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의 한국인들과 말레이들을 추적해보면, 이러한 종교상의 진행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한국에서, 조선 왕조의 통치자들은 처음에 외국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정책을 시도했다 (Hyun, 1997: 287). 그러나 조선의 이러한 정책은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연 숭배와 인간 숭배에 대한 융합으로 나타난 샤머니즘적 유교 문화가 일본의 식민정책과 서구 문물 유입으로 인해 기독교 등 다른 신앙들에 의해 약화되었다. 20세기 중반, 한국 전쟁의 혼란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UN군의 참전에 따라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의 형태로 "세계적인 제국의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 (Toynbee, 1956: 41).¹⁹⁾ 한국인 연구자는 한국 사회가 "서구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힘"을 인정하면서 서구 가치관과 체제, 사회-문화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라는 압력도 함께 받게 되었고, 미국의 파워로 결국 그러한 가치들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im, 1994: 89).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 숭배에 관한 첫 번째 수준의 종교로부터 두 번째 수준의 종교인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에 이르는 한국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국가로서의 한국은 결코 국가의 후원을 받는 세 번째 고등 종교를 가진 적이 없었다. 비록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또 조상 숭배의 제삿날과 같은 관습 등 유교의 영향이 계속되더라도 (Janelli and Janelli, 1982: 92),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한국 정부의 정책과 교육은,

19) 한국의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의 수용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쏠 세계적 제국에 대한 어느 한 사회의 수용은 종종 다음과 같았다. "끊임없는 동족상잔의 전쟁 단계에서, 전쟁으로 우상화되어진 국가들은 하나의 사회에 분열 직전의 순간을 가져오고 있다. ... 그리고 세계적 제국(이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절대적 숭배는 지금 순차적으로 그들 삶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 제국의 지배는, 지금 사회적 자살로부터 스스로를 상처받은 사회라고 말하면서, 유일하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Toynbee, 1956: 41).

어떤 특정한 ‘완전무결한 현실(Absolute Reality)’에 대한 숭배보다는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 동맹을 견고하게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의 경험으로 인한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Toynbee, 1956: 42). 이는 이슬람 영향 아래에서의 말레이시아가 ‘완전무결한 현실’에 대한 숭배와는 달리,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에 대한 숭배는 ‘너무나 비인간적이어서 큰 애정이나 또는 심지어 큰 감사’조차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낀 것과 대조된다 (Toynbee, 1956: 45). 이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 내의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 세대 차이에 대한 두 가지 원인으로 이어진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등 이차 숭배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등 종교적인 도덕 교육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적인 가치에 ‘편중된 문화 수용’ 현상이 있었다 (Kim, 1985: 120-140). 박혜경(2011: 71)이 예상한 것과 같이 이에 따라 가족 가치관이 변화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서구에 가장 많이 노출된 젊은 세대가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조선시대 말 한국 사회의 동도서기(東道西器) 정책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 서양적 이데올로기든 이슬람적 이데올로기든, 이들을 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Andaya and Andaya, 1982: 300-301). 왜냐하면 말레이인들은 위의 이데올로기들이 모두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Ibid.). 말레이시아는 약 500년 전에 자신들의 지역에서 행해졌던 순수한 자연 숭배를 버렸다 (Andaya and Andaya, 1982: 301; Toynbee, 1956: 28-29). 그리고 말레이인들은 점차적으로 ‘자연 숭배’를, 민족주의에 대한 제2단계의 ‘지방 지역공동체 숭배’와 결합시켜, 제3단계로 외국인이 가지고 온 이슬람 종교로 대체했다 (Ibid.). 또한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직접적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과는 별개로 자주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부총리인 Tun Dr. Ismail Abdul Rahman과 같은 정치가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적 기준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대신, 젊은 지도자들이 국가 건설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격려했다 (Beng, 2006: 231). 미국의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기에 이슬람적 가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말레이시아는 "국가 도덕 계획"을 통한 "자유재량적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하여 이슬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강화했다 (Mohamad, Aziz and Sim: 2009: 60; Stivens, 2006: 355). 21세기 초에는 말레이시아 의회가 자신들의 국가 법률에 대한 기초로서 이슬람법을 제정했다 (Aihwa, 1998: 54; Mohamad, Aziz, & Sim, 2009: 68, 93-94). 그리고 말레이시아 의회는 현대적인 이슬람 사회에 대한 모델을 위해, "역사적인 이슬람법(또는 선지자의 시대에 실시된 이슬람 법)"을 사용함으로써, "완전무결한 현실"에 대한 종교를 국가 자체의 핵심 이념으로 도입했다 (Ibid.).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즉 서구 사회의 제2단계 '세속적 지역공동체 승배'대신, '완전무결한 현실'에 대한 제3단계 종교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²⁰⁾

지금까지 한국의 유교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문화 권역에서, 어떻게 종교적인 문화가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폈다. 이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21세기 가족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가치관을 변화시킨 한 가지 긍정적 측면은, "압축적 근대화"하에 전통과 서구적 가치 및 제도가 자의 혹은 타의로 밀려들면서 이들 상호간에는 체계적 공전원리 없이 다원성을 띠게 되었고, 이는 젊은 사람들과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남녀평등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했다는 점이다 (장경섭, 2009: 15, 29). 반면에 이러한 형태의

20) 사실 말레이시아 국가의 이러한 자체적 노력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인 이슬람 공동체의 영향 덕분에, 말레이인들의 가족 가치관은 이슬람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압축적 근대화는 낮은 출산율, 세대 차이, 복지 제도의 부재 등 때문에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Ochiai, 2011: 219). 또한 ‘가족주의 압축성 근대성’은 한국인 부모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었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 아래서, ‘유교적 유산’과 ‘가족 의존 정책’ 모두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에 따라, 많은 한국인 아내들이, 전통적이고 근대적인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문현아, 2008: 71; 박기남, 2009: 63; 장지연·부가청, 2003: 149-150). 한국인 아내들은 예컨대 적은 수의 아이 또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과 같은 ‘위험 회피적인 개인주의적 행동’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줄임으로써, ‘가족주의 압축적 근대성’에 대응했다 (Chang and Song, 2010). 한국인 아내들은 이를 통해 가정의 안과 밖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많은 의무들을 더 잘 수행하고자 했다 (Ibid.).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의 ‘가족’ 유지와 관련된 집안일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집안일을 위해 고용된 또 다른 여성의 저임금 혹은 확대가족의 무임금으로 대체되었다 (문현아, 2008: 72). 또한 압축적 근대화는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과 기러기 가족 현상에서 나타나듯, 한국인 남편들이 결혼 제도와 자녀 양육으로 자신들의 아내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한층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조은, 2008: 6). 이러한 계획에 따라 만일 한국이 이러한 가족주의를 지속시키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변화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사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사회는 서구식 근대화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 기간 동안 말레이인들은 어떠한 형태의 ‘제2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예컨대 결혼의 포기나 이혼 증가, 간통의 증가, 동거의 증가처럼 세속적인 가치관과 같은)도, 또한 한국과 같은 압축적 근대성의 혼란도 경험하지 않았다 (Lesthaeghe, 2010: 246; 장경섭,

2009: 15, 29). 1980년대까지의 "국가 산아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이르러서도 말레이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가정의 이상적인 아이들의 수가 4명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MFS, 2012; Stivens, 1996: 202). 아울러 그 중 27%의 인구는 한 가정에 5명이나 그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했다 (MFS, 2012). 말레이인들은 또한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한국인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EASS, 2006; MFS 2012). Toynbee와 Durkheim은, 비록 고등 종교의 역할이 제한적일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줌으로써 견고한 사회 체도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주었다 (Durkheim, 1951: 15; Toynbee, 1956). 또한 이러한 가족 가치관하에서의 장점은 말레이인들에게는 제2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second demographic transition)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반면 말레이인들의 가족 가치관 모델은 남녀불평등이라는 결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말레이 사회에서도 아시아의 가족 가치관은 통계상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기존 ‘Post 유교 개발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위 아시아적 한국인의 가치관과 말레이인의 가치관들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교적 가치관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향상과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했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가치관들은 말레이 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세기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는, 종교와 문화적인 역사 차이에서 기인한 경로 의존성에 따라, 서구식 근대화와 산업화에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후, 한국 사회는 ‘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에 의존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초 세계적인 국가 및 강력한 한국인의 국가주의 정책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얻었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처럼, 더 젊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훨씬 더 남녀평등 쪽으로 나아갔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두 경우와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한 동맹 대신에 이슬람 문화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그들 문화의 고유한 가족 가치관을 유지했다.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은 훨씬 더 빠르게 남녀평등 쪽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것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던 서구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지만, 지속 가능한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이슬람과 유교사상이 강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남녀평등 및 유지가능성과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할지에 관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 문헌

국문자료

단행본

- 에미꼬 오치아이. 2013. 『동아시아 여성과 가족변동』. 계명대학교 출판부.
- 이완범. 2006.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선인.
-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창비.

논문

- 문현아, 2008.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과 가족의 재구조화”, 『여/성이론』 겨울호: 59-85.
- 박기남, 2009. “기혼취업 여성의 일, 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2): 37-71.
- 박혜경, 2011.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3): 71-106.
- 이현우·이정진, 2013. “세대별 이념갈등의 이질”, 『국가전략』 19(1): 57-81.
- 장지연·부가청, 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65(2): 149-179.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5-37.

영문자료

단행본

- Aihwa, Ong. 1998. “Sisterly Solidarity in the Malaysian Public Sphere.” Oh, Myung-Seok and Hyung-Jun Kim (Eds.).

- Religion, Ethnicity and Modernity in Southeast Asi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Andaya, Barbara Watson and Leonard Y. Andaya. 1982. *A History of Malaysia*. The Macmillan Press LTD.
- Beng, Ooi Kee. 2006. *The Reluctant Politici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oi, Hyaeweol. 2009.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 Durkheim, Emile. 1951. *Suicide*. The Free Press.
- Goode, William J.. 1993. *World Changes in Divorce Patterns*. Yale University Press.
- Hatcher, Larry. 1994. *A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SAS for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S Institute, Inc..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elli, Roger L. and Dawnhee Yim Janelli. 1982.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rim, Wazir Jahan. 1990. "Prelude to Madness: The Language of Emotion and Courtship and Early Marriage." Karim, Wazir Jahan (Eds.). *Emotions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Kendall, Laurel. 1996. *Getting Married in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m, Kyong-Dong. 1985. *Rethinking Development: Theories and Exper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Kyong-Dong. 1994. "Confucianism and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Sklair, Leslie (Eds.). *Capitalism & Development*. Routledge.
- Lee, Sang Wha. 2005. "Patriarchy and Confucianism: Feminist Critique and Reconstruction of Confucianism in Korea." Chang, Pilwha and Eun-Shil Kim (Eds.).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st Practices in South Korea*.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 Lindsey, Linda L.. 2005. *Gender Roles: A Sociological Perspective*. Pearson Prentice Hall.
- Mohamad, Maznah, Zarizana Aziz and Chin Oy Sim. 2009. "Private Lives, Public Contention." Jones, Gavin W.; Leng, Chee Heng and Mohamad, Maznah (Eds.). *Muslim-non-Muslim Marriag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haikh, Nermeen. 2007. *The Present as History: Critical Perspectives on Global Power*. Colombia University Press.
- Sonbol, Amira El Azhary (Eds.). 1996. *Women, the Family, and Divorce Laws in Islamic History*. Syracuse University Press.
- Stivens, Maila. 1996. *Matriliney and Modernity*. Allen & Unwin.
- Toynbee, Arnold. 1956. *An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 Abdullah, Osman bin, Abdul Salam Muhamad Shukri, and Normala Othman, 2011. "Filial Piety in Confucianism and Islam: A Comparative Literary Analysis of Quran, Hadith, and Four Chinese Classics." *Islam and Civilizational Renewal*, 3(1): 133-246.

- Abu-Lughod, Lila, 2002. "Do Muslim Women Really Need Saving?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Cultural Relativism and Its Others." *American Anthropologist*, 104(3): 783-790.
- Angle, Stephen C., 2013. "Contemporary Confucian and Islamic Approaches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mparative Philosophy*, 4(1): 7-41.
- Aziz, Rahimah Abdul and Fatimah Yusoooff, 2012.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among the Rural Aged in Malaysia." *Asian Social Science*, 8(6): 184-195.
- Cetinkaya, Kenan, 2011. "Ren and Iman: A Comparative Approach to Confucian and Islamic Virtu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1(1): 135-143.
- Chang, Kyung-Sup, and Min-Young So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Choy, Yee Keong, 2006. "Behind Malaysia's "Miracle": A Veblenian Perspective on Mahathir's Era of Economic Moderniza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40(4): 861-874.
- Eun, Ki-Soo, 2013. "'Asian Family Values' in East Asian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Intimate and Public Spheres*, 2(1): 105-125.
- Eun, Ki-Soo, 2006.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Family Values: Focusing on Gender and Generational Gap." *Family and Culture* 18(2): 1-31.
- Han, Sang-jin, 2011. "From the Asian Value Debate to Cosmopolitanism: An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Political Thoughts of Kim Dae-jung." *Korea Journal*. 51(3): 196-222.

- Hoh, Anchi and Brannon Wheeler, 2012. "East by Mid East: Studies in Cultural, Historical and Strategic Connectivities." *Comparative Islamic Studies*, 7(102): 1-11.
- Hyun, Theresa, 1997. "Byron Lands in Korea: Translation and Literary/Cultural Changes in Early Twentieth-Century Korea." *TTR: trduction, terminologie, redaction*, 10(1): 283-299.
- Inglehart and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19-51.
- Lesthaeghe, Ron,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Ochiai, Emiko,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 219-245.
- Rahman, Aminah Abdul, 2011. "Contemporary Malaysian Families: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slam and Civilizational Renewal*, 3(1): 193-199.
- Schwartz, Shalom H., 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2-3): 137-182.
- Stivens, Maila, 2006. "'Family Values' and Islamic revival: Gender, rights and state moral projects in Malaysi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9: 354-367.
- Stivens, Maila, 2010. "Religion, nation and mother-love: The Malay Peninsula past and present."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3: 390-401.

Tamai, Ken and Jonghwan Lee, 2002. "Confucianism as Cultural Constraint: A Comparison of Confucian Values of Japa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3(5): 33-49.

기타

Alkire, Sabina, 2010. Human Development: Definitions, Critiques, and Related Concepts. UNDP, 1.

Chung, Woojin and Monica Das Gupta, 2007. Why is Son Preference Declining in South Korea? The World Bank.

Ranis, Gustav, 2007. Causal Chain between Huma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Social Watch, 2012. Know the Size of Your Gender Gap. Oxfam Novib.

UNDP, 1996.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UNDP, 2010. The Real Wealth of Nations: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World Economic Forum, 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World Economic Forum.

Abstract

Family Values in Changing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Malaysia-

Gina Friesen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ovides a comparative study of Confucian and Islamic family values through a case study of Koreans and Malays. Confucian and Islamic ideology traditionally exhibited gender unequal practices in these countries. These cultural influences still affect Korea and Malaysia, as shown through their low Global Gender Gap ratings. It was postulated that Confucian and Islamic ideology shared some similarities in their family values and that this may have affected their development process.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is thesis, based on national survey results, shows that Confucian and Islamic family values in

fact do share significant similarities. This research challenged the post-Confucian development theory by showing that 'Asian Family Valu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Malays as well as Koreans. However, these values changed differently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Confucian values faded in Korea with education and time. In contrast, the same values, also found among Islamic Malay society, were sustained.

This value convergence in Korea versus the value persistence in Malaysia was explained using Inglehart's theory of religio-ideological path dependency and Toynbee's theory about religious progression in history. In other words, Korean and Malay societies reacted to Western modernity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20th century differently due to varying cultural path dependency in each of their distinct zones of Confucian and Islamic religio-ideological culture.

In the analysis section, this thesis gives a brief religious history of 20th and early 21st century Korea and Malaysia. The Korean state after the Korean War turned to Pax Americana, which Toynbee classifies as a state reliance on second level religion of man-worship. It gained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n alliance with the oecumenical state of America and strong Korean nationalist policies. Like Americans, younger and more educated Koreans thus moved towards greater gender equality. Unlike both the Americans and the Koreans, the state of Malaysia on its part promoted Islam – one of several third level religions – instead of an American alliance, and thus retained their original family values.

Korean family values, although rapidly changing towards greater gender equality, were shown to be unsustainable. This is in line with the Western pattern which Korea has been following. Malay family values, while lacking in gender equality, were sustainable. More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as to how to synthesize a social system with both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ility.

.....

Key Words : South Korea, Malaysia, Family Values, Confucianism, Islam, Human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1-24218